

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Rotated palatal flap의 이용

강휴택*, 정철화, 김옥수, 김영준, 정현주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법 (immediate implant procedure)은 비교적 성공적이며 예지성 높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.

이 방법은 기존의 술식에 비해 발치후 최종보철물 제작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,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또한 발치 후 진행되는 치조골의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, 인접 치은조직의 퇴축을 예방하여 심미적으로 보다 더 개선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. 그러나 발치와와 임플란트 사이의 크기 및 형태의 차이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에 골결손부가 잔존하게 되며, 임플란트 상방 연조직의 1차 유합(primary closure)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.

임플란트나 차폐막의 조기노출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치유 및 골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,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임플란트 상방 연조직의 1차 유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. 그 중 rotated palatal flap은 부분층 또는 전층의 구개측 pedicle graft를 이용해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피개하는 방법으로 높은 성공률과 양호한 치유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

본 증례에서는 상악 소구치의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, rotated palatal flap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1차 유합을 얻은 후, 임상적 치유상태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 1

48세 여성 환자로 #15의 치관-치근 복합 파절을 보여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와 주변의 결손부는 Biocoral®450을 사용하여 골이식하였다. 식립 부위의 1차 유합을 위하여 구개측은 부분층 rotated palatal flap, 협측은 치관측 변위 판막술을 이용하였다. 6개월 후 2차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골결손부의 재생 및 임플란트의 양호한 골유착상태를 보였다.

증례 2

52세 여성 환자로 #15의 치근수평 파절을 보여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발치와 주변의 결손부는 Biocoral®450을 사용하여 골이식하였다. 식립 부위의 1차 유합을 위하여 전층 rotated palatal flap을 이용하였다. 6개월 후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양호한 연조직치유 및 골유착상태를 보였다.